

PIANC-KOREA 설립 및 활동방향



황철민
한국여객어항협회 어항관리본부장

1. 추진배경

PIANC는 하천이나 운하를 이용한 내륙수운이 발달한 유럽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교역을 하기 위한 국제간 협의를 목적으로 1885년에 설립된 단체로 유엔의 자문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항만 및 수로시설(어항, 스포츠·레크레이션용을 포함)의 계획·설계·건설·개수·유지 및 운영에 관한 발전과 연안지역의 개발, 수상교통의 유지·발전 및 촉진을 위해 회원간의 교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PIANC의 주요활동은 4년에 1번 열리는 국제항로회의의 개최 외에 협회의 운영방침이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연차총회에 이르는 일련의 회의개최, 주제별 워킹그룹에 의해 실시되는 연구활동 및 회원의 연구성과 발표와 정보교환을 위한 회보나 보고서 등의 출판물의 발행으로 이뤄진다.

2008년 5월 정부회원 31개국을 포함하여 65개국에서 단체회원 약 450개사, 개인회원 2,000명을 보유한 국제 단체로 발전했다.

이번에 설립을 준비하게 된 PIANC-KOREA는 세계적인 기술 네트워크를 갖춘 PIANC 활동에 국내 항만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항만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수준과 전망을 가늠하고 우리나라 항만 기술발전을 도모하며, 외국 항만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으로 국위선양과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거양하는데 있다.

2. PIANC 본부의 주요 활동

PIANC 본부의 활동은 국제항로회의, 연차총회,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재무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로 구성된다.

A. 국제항로회의

(International Navigation Congress : Congress)

국제항로회의는 통상적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프로그램은 전체회의, 분과회, 강연 및 시찰여행으로 구성, 국제항로회의에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임시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1990년에 아시아 최초의 대회로서 제27회 국제항로회의가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B. 연차총회(Annual General Assembly: AGA)

연차총회(AGA)는 협회의 결정기관으로, 정부대표(협회에 가입한 국가 또는 지역의 대표)등으로 구성, 총회는 가맹국이 돌아가며 주관하며, 매년 다른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5월이나 9월에 개최된다.

C.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ExCom) 및 평의회(Council)

연차총회(AGA)에서 의안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ExCom) 및 평의회(Council)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PIANC 회장, 4명의 부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고, 평의회는 집행위원의 멤버에 회원국의 대표 각 1명을 더해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년 3~4회 개최되며, 주로 재정문제, PIANC 활성화 문제, 국제항로회의 개최방법 등을 논의한다. PIANC에서는 매년 35세 미만의 청년기술자·연구자를 대상으로 De Paepe-Willems상(DPWA) 논문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D.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ssions)

InCom(내륙수로), MarCom(해항), EnviCom(환경), RecCom(레크레이션)의 4개 분야의 기술 관련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3.1 협회명칭 및 활동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PIANC-KOREA는 한국명으로는 “(가칭) 한국해상교통시설기술협회”이다. PIANC의 본래 영문명칭이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로 한글로 직역하면 “국제항로협회”가 되어 협회활동 목적, 회원구성, 관련분야가 본래 의미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협회 활동목적과 범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글 명칭은 “한국해상교통시설기술협회”로 정하였다. 현재 PIANC 영문명칭이 “The 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한 명칭인 것으로 판단된다.

PIANC-KOREA의 주요활동 목표는 ① PIANC 본부 활동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및 실시, ② PIANC 연구 활동 및 성과의 국내 보급, ③ 본부 사무국과 국내 회원 간의 연락 조정, ④ 협회 회비징수 및 신규 회원의 등록 신청에 관한 사업, ⑤ 기타 PIANC-KOREA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PIANC-KOREA의 주요 활동은 4년에 1번 열리는 국제항로회의(통칭 PIANC



〈표 3-1〉 PIANC-KOREA 발기인 현황

정 부	조종환(항만정책관), 박승기(항만정책과장), 박홍남(항만개발과장) 이상 국토부, 허 응(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4과장), 이상기(농림수산식품부)
공 사	윤병구(BPA 사업단장), 최중문(IPA 건설본부장), 현대홍(IPA 고문)
협 회	조남일(회장), 신명(부회장) 이상 항만협회, 황철민(한국어촌어항협회 본부장)
대 학	전인식(건국대), 김효섭(국민대), 서경덕(서울대), 조용식(한양대), 윤성범(한양대)
연구원	엄경득(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 채장원(본부장), 안희도(책임연구원), 박우선(책임연구원) 이상 한국해양연구원
건설사	정만화(남광토건 사장), 리운순(대림건설 상무), 이도희(대우건설 상무), 송영재(삼성물산 상무), 김정기(현대건설 상무), 고갑수(SK건설 부사장), 이진호(다우해양 회장), 정행면(금광기업 사장), 조상국(대보건설 대표이사), 오봉진(유호산업개발)
용역사	오세범(건일 사장), 양태윤(한국항만 사장), 고진석(혜인 사장), 김형인(세일 부회장), 송기동(동일기술공사), 원용범(유일 종합 회장), 송만순(건화 부회장)
시행사	이상문(마산아이포트 대표), 조치현(평택 아이포트)
기 타	이동원(포트아카데미), 이상주(前 인천신공항)

Congress)에 협조 및 참여하고, 일련의 국내 회의의 개최, 주제별 워킹그룹에 의해 실시되는 연구활동 및 회원의 연구성과 발표와 정보교환을 위한 회보나 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행을 활동하게 된다.

3.2 PIANC-KOREA 회원

PIANC-KOREA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브뤼셀에 있는 PIANC 본부 정회원으로 가입된다. 정회원은 건설사, 엔지니어사, 연구소 등 단체회원과 항만업계 종사자나 관련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개인회원으로 이뤄진다. 또한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로서 PIANC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특별회원이 있다.

PIANC 정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PIANC 본부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국제항로회의(International Navigation Congress)에 참석, 논문 발표, PIANC Magazine에 논문 및 의견 등의 응모 내지 투고, De Paepe-Willems(償) 논문에 응모(회원 또는 단체회원에 소속한 자로 35세 이하인 자에 한한다)

등 각종 연구 및 학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PIANC Magazine, 워킹그룹 보고서, 정회원 명부 등 PIANC 출판물을 개인회원은 1부, 단체회원은 2부를 취득할 수 있으며, Newsletter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PIANC-KOREA는 PIAN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PIANC-KOREA 출판물의 배포, 사무국 계반 수속 업무의 대행, PIANC 제출 논문 또는 Magazine 투고, 강연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3 PIANC-KOREA 설립 발기인 대회

PIANC-KOREA 설립을 위해 항만전문가 43명이 모여 2009년 11월 23일(월),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국토해양부 조종환 항만정책관, 항만정책과장, 항만개발과장 등을 비롯, 항만공사, 연구소, 대학, 건설사, 엔지니어사, 협회 등 우리나라 항만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PIANC-KOREA 설립에 공감하고 PIANC-KOREA를 통해 항만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해양부 조종환 항만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PIANC-KOREA 설립은 우리나라의 항만기술을 한 단계 높이고 국내 항만기술인이 세계인과 나란히 어깨를 하여 항만 기술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단법인 포트아카데미의 이동원 원장이 PIANC-KOREA 설립될 때까지 임시회장을 맡기로 하였고, 안희도 박사가 중심이 되어 해양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 등과 함께 협회 설립을 준비할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날은 협회 설립근거, 명칭, 사업목적, 사무국 구성, 회원, 이사회, 총회 등을 규정한 정관을 보고하였으며,

2월에 개최될 설립 총회시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검토 후 채택할 계획이다.

4. 맺음말

PIANC-KOREA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2010년 1월말까지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2010년 2월경에 설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립 총회시에는 협회임원, 정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향후 협회활동 및 운영 방안 등을 보고한다. 국토해양부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내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해 나가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도 PIANC-KOREA 활동을 통해 국내 항만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김 명 진 서기관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mjkim@mltm.go.kr)

감 수 : 정 해 응 (huchung7@yahoo.co.kr)